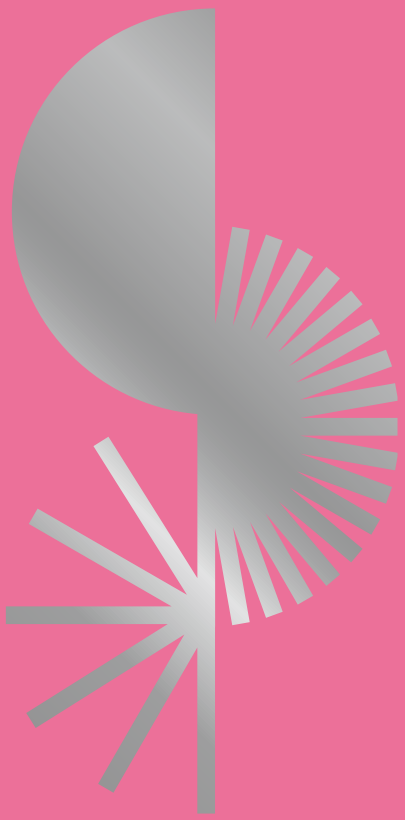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서울기록원 개관기념전



기억의 힘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서울기록원 개관기념전 기억의 힘

서울의 속도는 빠르다. 이 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한다. 동네에는 새로 건물이 들어서고, 시내의 거리는 어느새 낯설어져 있다. 그렇게 우리는 역동하는 도시를 얻었지만, 그 빠른 속도로 인해 우리가 서서히 잃어가는 것도 있다. 다름 아닌 기억이다. 기억 없는 삶은 공허해지고 기억 없는 도시는 황량해진다. 기억이 힘을 잃은 곳에서 우리 삶도 이야기를 잃기 때문이다.

기억이 시간의 흐름을 이겨내고 스스로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 기억은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기억될 수 있다. 그것이 기록이다. 그리고 기록은 기억을 오래 지속시킬 뿐 아니라 각자의 기억을 모아 모두의 것으로 성장시킬 수도 있다. 즉 기록은 기억을 역사로 만든다.

서울기록원은 서울에서 생겨난 기록을 보존하는 저장소로서, 기록이 지닌 역사성과 현재성을 전하는 매개로서, 시민들이 만들어낸 기록을 나누는 공유지로서, 서울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기억의 집합체로서 자리하고자 한다.

서울기록원은 시민들에게 그 문을 열며 공공기록부터 시민기록까지를 아우르는 개관기념전 '기억의 힘'을 마련했다. 개관기념전 '기억의 힘'의 테마는 총 네 가지이다. '기록의 발견', '기록의 발현', '기록의 발원' 그리고 '기록의 발굴'이다.

첫 번째 전시는 〈기록의 발견 - 목동 신시가지 개발 기록〉으로 2016년 목동 에너지사업단 화력발전소에서 대량의 공공기록물이 '발견'되어 기획되었다. 이 전시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공공기록이 서울시에 이관된 과정을 소개한다. 그 기록물을 바탕으로 목동의 개발사를 그려냄으로써 버려진 종이더미에서 발견한 서울사의 단면을 전할 것이다.

두 번째 전시는 〈기록의 발현 - 주공아파트 주민기록〉으로 재개발을 앞둔 둔촌, 고덕, 개포, 과천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일궈낸 시민기록들을 살피며, 아울러 한 기록자의 활동이 다른 집단에게 전해지고 전이되는 독특한 움직임을 담아낸다. 이 전시는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록한다면 그것이 서울의 '작은 역사'로 발현될 수 있음을 전할 것이다.

세 번째 전시는 〈기록의 발원 - 경북 청도군 범곡리 134-18, 서울특별시 문서보존소〉로 유사시를 대비해 서울의 중요 자료들을 분산 보존한 서고인 '청도문서고'의 역사를 소개한다.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 기록을 보존해온 청도문서고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제 역할과 기능을 다했다. 서울기록원의 정식 개관·운영과 함께 청도의 기록은 2019년에 서울로 옮겨진다. 이 전시에서는 청도문서고의 반세기를 기록하며, 서울기록원의 시작과 함께 그 발원지인 청도문서고의 어제를 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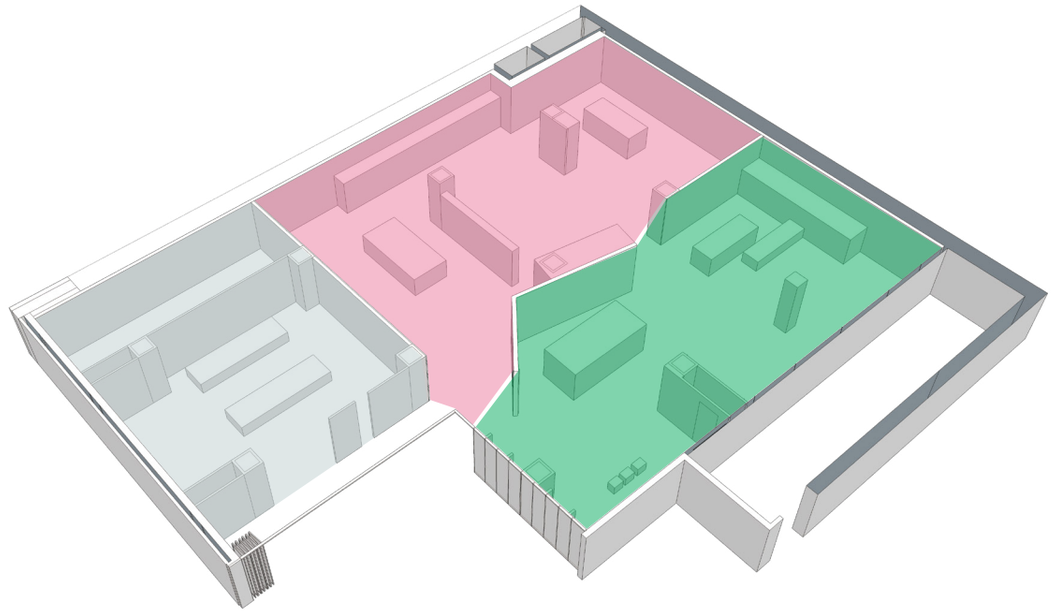
마지막 전시는 〈기록의 발굴 - 일본군'위안부' 기록〉으로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연구팀이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실질적 증거 자료를 '발굴'해낸 과정을 담는다. 연구팀은 서울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외에서 자료를 수집해 한국 최초의 일본군'위안부' 자료집을 발간하는 성과를 냈다. 이 전시는 집단 기억의 증거를 찾아내는 기록 발굴의 중요성과 기록을 통합 공유하는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전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 소장하고 있는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정신대 문제'와 관련된 조시현과 박원순의 기록 컬렉션을 소개한다.

※ 〈기록의 발원〉전시는 교육 및 견학의 목적으로
3층 개방형 서고 구역에 조성했습니다.
제한적으로만 개방하며 담당자 인솔이 필요합니다.

전시장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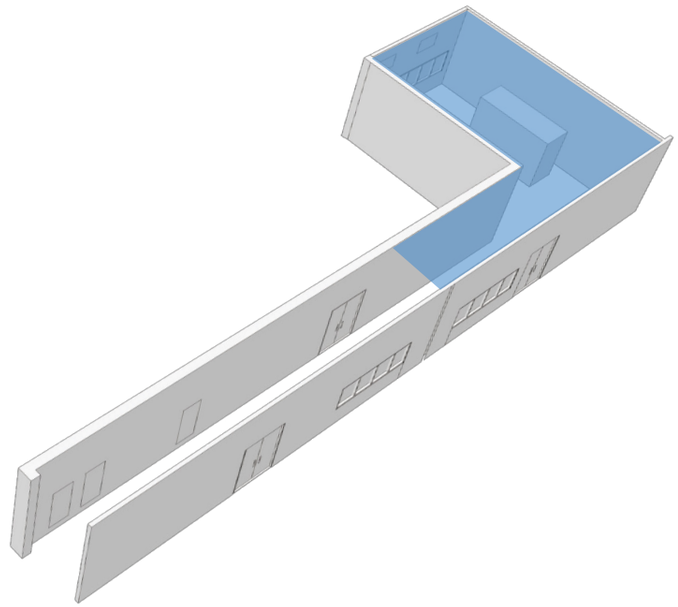
2F

- 특별전시실: 기록의 발굴 - 일본군'위안부'기록
- 제1전시실: 기록의 발견 - 목동 신시가지 개발 기록
- 제2전시실: 기록의 발현 - 주공아파트 주민기록



3F

- 제3전시실: 기록의 발원 - 경북 청도군 범곡리 134-18, 서울특별시 문서보존소



기록의 발견發見
목동 신시가지 개발 기록

2016년, 목동 에너지사업단 화력발전소에서 대량의 공공기록물이 발견되었다. 이 기록물은 1983년부터 진행된 목동신시가지 개발 과정에서 생산된 것으로, 개발 전담 부서인 목동지구개발사업소가 폐지된 이후 지난 30여 년 간 방치되어 있었다.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긴급히 기록물을 이관한 서울시 기록관은 문서고에 기록물들을 임시 배치하고 디지털 변환 작업을 거쳐 이를 보존했다.

이듬해인 2017년, 목동신시가지개발(1984~1989) 관련 기록물 약 1만 권은 '서울시정 중요 종이기록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서울시가 임시 보관 중이던 기록물들은 이후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시스템을 갖춘 서울기록원으로 이관되면서 비로소 시민들에게 가닿을 수 있게 되었다.

본 전시는 닫힌 창고에 있던 공공기록물이 30여 년 만에 세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이다. 서울기록원은 목동신시가지 개발 관련 행정문서, 도면, 사진, 박물 등을 최초로 시민에게 공개하여 현재의 목동이 어떻게 구상되고 형성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목동 화력발전소 창고에 쌓여있던 종이 더미가 어떤 절차를 거쳐 기록물로 시민을 만나게 되었는지, 1980년대 최초의 공영 개발인 목동 신시가지 개발 사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생겨났는지를 짚어보면서 기록물에 담겨 있는 서울의 역사를 만나보고자 한다.

연표

1983. 4. 11.	목동지구 신시가지 개발 계획 발표(시장 기자회견)
1983. 3. 16.	목동지구 개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시장 간담회
1983. 5. 11.	목동지구 개발사업소 발족
1983. 5. 13.	기본 계획안 현상 공모 공고(4개 일간 신문 게재)
1983. 7. 9.	개발 기본 계획 현상 공모 당선작 확정
1983. 7. 28.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단 구성 (공모 당선 회사 직원 지원 및 서울 시 요원으로 구성)
1983. 8. 4. – 1983. 8. 11.	계획위원(김수근, 강병기, 김형만, Oswald Nagler) 기본 구상 작업
1983. 9. 6.	기본 골격안 확정(시장보고)
1983. 11. 1.	택지 개발 계획 승인(건설부 고시 제373호)
1983. 12. 8.	목동지구 아파트 건립 공사 1공구 착공
1984. 12. 9.	목동 개발 사업 기공식(토목공사 1부)
1984. 1. 7.	실시계획 승인(건설부)
1984. 4. 20.	목동지구 아파트 건립 공사 1공구 착공
1984. 12. 29.	중심축 도시설계 확정
1985. 11. 19.	아파트 1공구 준공/아파트 1차분 1,882 가구 입주 개시
1987. 4. 18. – 1987. 5. 15.	4차 아파트(2,130가구) 분양(국민 주택 규모: 1,500 가구, 국민 주택 초과: 630가구)
1987. 10. 1.	제척지구 195,000평 건축 규제 규제 해제
1987. 11. 28.	열병합 발전소 준공(공사비: 364억 원, 공사기간: 1985. 1.~1987. 10, 주요시설: 난방시설 585t/h)
1989. 11.	**목동 신시가지 개발 사업을 전담하던 목동지구개발사업소 폐쇄**
2016. 6. 23.	SH 공사 집단 에너지사업단에서 열병합 발전소 내 문서고에서 기록물을 확인하고, 이관 협의를 위해 정보공개정책과에 연락
2016. 6. 28.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기록물 현황 파악을 위해 SH 공사 집단 에너지사업단 방문
2016. 9. 1. – 2016. 9. 30.	기록물 오염물 제거 처리 후, 본관 문서고로 이관
2017. 2. 1. – 2017. 11. 30.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2017년도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사업' 추진



출처: 이관 전 작업 사진 중 일부(2016)

1



2



1
준공서류함 목동 4차 아파트 13공구
2016년 6월,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열병합발전소 내부
문서고 안에서 발견된 목동 4차 아파트 13공구(토목) 준공서류함

2
2016년 6월 28일 현장 방문 당시 촬영사진
목동 에너지사업단 열병합발전소 내부 3층에 있는 80평 규모의 문서고 안에는 목동 신시가지 개발과 관련한 문서, 도면, 사진, 사무실 집기 등이 약 30년간 보관되고 있었다. 사진은 2016년 6월 28일에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촬영한 것이다.

3
〈목동 신시가지 기록물 이관 및 관리 계획〉
(내부보고문서)
첫 현장 방문 이후 작성된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의 내부 문건이다. 문건에는 집단에너지사업단이 기록물 이관 협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로 연락한 과정과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한 기록물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향후 관리계획 등이 정리되어 있다.

4
〈2017년도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사업 추진계획〉
2017년도 DB구축 사업에 목동 신시가지 개발 관련 기록물이 포함된다는 내용의 문건이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는 시정에 중요한 종이기록물에 대한 정리와 체계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보존가치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을 매년 선정해서 DB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출처: 정보공개정책과-3111 (2017. 2. 9.)

5
〈목동 신시가지 개발 기록물 이관 결과 보고〉
2016년 8월 29일부터 2016년 9월 2일까지 목동 신시가지 개발 관련 기록물에 대한 이관을 완료했다는 내용의 정보공개정책과의 문건이다. 상자 546개와 노란 바구니 90개, 패널 30개, 액자 15개, 준공도면함 1개가 서울시 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
출처: 정보공개정책과-18084 (2016. 9. 6.)

3

목동 신시가지 기록물 이관 및 관리 계획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목동 신시가지 개발관련 기록물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기록관으로 이관 및 정리하여 관리하고자 함

☐ **기록물 발견경위**
○ **에너지사업단에서 기록물 이관 협의를 위해 정보공개정책과에 연락(6.23)**
- 에너지사업단 설립 시('84년)부터 목동지구개발사업소 기록물을 보관
※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우리시 조례에 따라 목동지구 택지 조성 및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1983년 목동에 설립, 1989년에 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도시계획국에 업무인수인계
- 에너지공사 전환을 앞두고 문서고 정리를 위해 도기본에 연락하였으나 담변이 없어 우리과에 연락
○ **기록물 현황 파악을 위해 에너지사업단 방문(6.28)**
- 에너지사업단 화력발전소 내부 3층에 80평 규모의 문서고 존재

☐ **기록물 현황 및 실태**
○ **목동 신시가지 개발('84~89) 관련 기록물 : 약 1만권(캐비넷 50개)**
- 개발 관련 문서, 도면, 사진 등의 기록물이 철함 및 바닥에 보관
- 캐비넷에 보관된 기록물은 양호하나 바닥에 쌓인 기록물은 오염 및 열화
○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사무실 집기 등 행정박물 : 약 100여점**
- 30년 동안 문서고가 폐쇄된 상태로 관리되지 않아 먼지가 두텁게 쌓임

☐ **관리계획**
○ **기록물 오염물 처리 및 본관 문서고로 이관 : '16. 9**
- 기록물 양이 많고 관리상태가 열악하여 전문업체 선정 후 추진
○ **기록물 목록작성 등 정리 : '16. 10**
- 기록물 재편철, 면표시, 색인목록 작성, 공개구분 등
○ **1980년대 목동 신시가지 개발 콘텐츠화 등 기록물 활용방안 모색**
- 관련 기록 추가조사하여 서울기록원 개관시 시민서비스 제공

4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111				시 장
결재일자	2017. 2. 9.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정슬희	김종필	조영삼	02/09 김인철
방침번호					

I. SEOUL. U

2017년도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사업 추진계획

2017. 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5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8084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결재일자	2016. 9. 5.	김현정	김종필	09/05 조영삼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시 안

I. SEOUL. U

목동 신시가지 개발 기록물 이관 결과 보고

2016. 9

정보공개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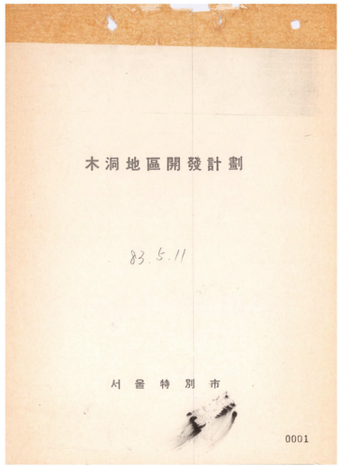
6
〈목동지구개발계획〉(1983. 5.)
1983년 4월 11일 '목동지구주택공급계획'이 발표된 이후 당시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에서 작성했으며, 총 39쪽 분량이다. 목동지구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안으로, 현상설계공모를 공고하기 이전인 1983년 5월 11일에 작성되었다.

7
택지개발계획 승인 (1983. 11. 2.)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목동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1항에 의한 택지개발 기본계획이 승인되었다는 내용의 건설부 문건(건설부 고시 제 373호). 개발계획의 개요가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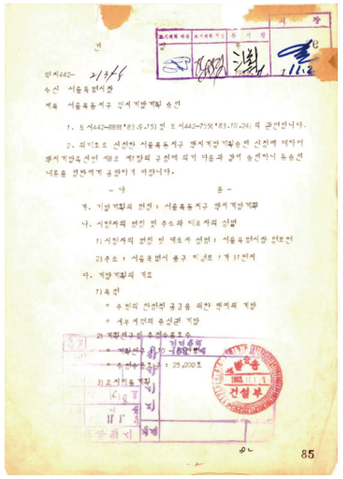
8
〈목동지구 신시가지 개발 기본설계(안) 현상 공모 당선작 발표〉(1983)
목동지구 신시가지 개발 기본설계(안) 현상 공모 당선작을 발표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과 문건이다. 현상설계공모에는 총 13개팀의 작품이 제출되었고 각계를 대표한 전문가 16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순위 없이 5점의 당선작품이 결정되었다.

9
〈목동지구신시가지개발계획 (기본계획 요약)〉(1984. 6.)
목동지구개발계획단에서 작성한 것으로, 1984년 3월 6일에 확정된 목동 신시가지 개발 기본계획을 요약한 문건이다. 기본계획은 현상설계공모(1983. 5. 13. ~1983. 07. 09.)에 당선된 5가지 안을 바탕으로 목동개발기본계획작업단(1983. 7. 26.~1983. 10. 25.)이 기본구상 작업을 하고, 목동지구개발자문위원회(1983. 12.)의 자문을 거쳐서 확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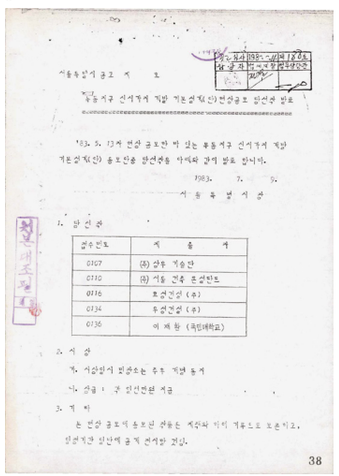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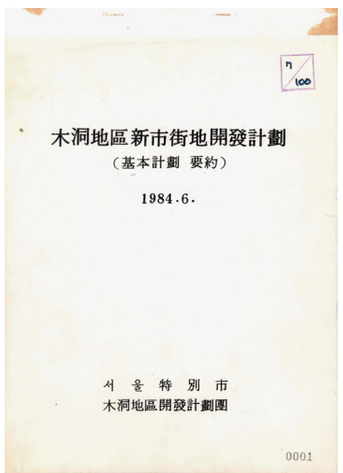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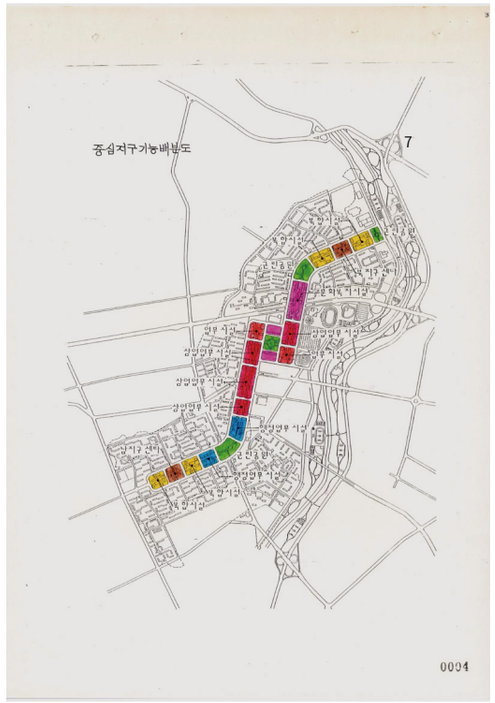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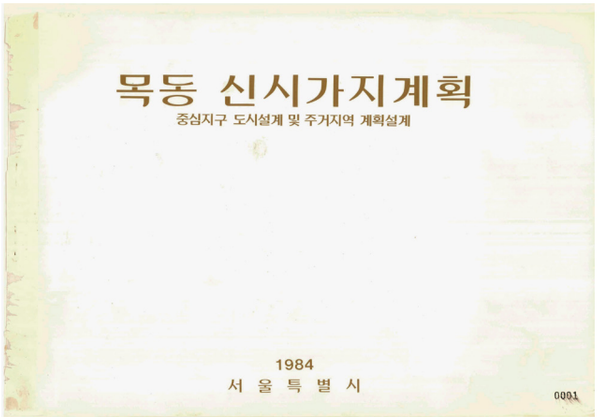




10



11



12

10
현상공모 당선작(우성 건설 및 서울건축) 전시
1983년 7월 19일부터 1983년 7월 23일까지 서울특별시청 시정 홍보실에서 현상설계공모에 제출된 총 12개사의 작품, 패널 108매에 대한 전시가 진행되었다. 시민들이 ㈜우성건설이 제출한 공모안을 관람하고 있다.
출처: 서울사진아카이브, 111845, 시정사진, 1982. 11. 30.

11
〈목동지구 도시설계(안) 보고〉(1984. 11.)
현상설계공모 당선 업체인 ㈜서울건축콘설탄트가 작성한 목동지구 도시설계(안) 보고서이다. 중심지구의 블록을 기존의 14개에서 19개로 재조정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2
〈목동 신시가지 계획 - 중심지구 도시설계 및 주거지역 계획설계〉(1984)
목동 신시가지 개발에서 중심지구 설계 업무를 맡았던 ㈜서울건축콘설탄트가 시행한 설계용역의 보고서이다. 기본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주거지역 계획설계와 중심지구 도시설계를 다루고 있다. 이를 지침으로 하여 아파트 단지 공사 및 중심지구 토지 용도 등이 결정되었다.

13



14



15



13
목동 신시가지 개발 기공 (1983. 12. 9.)
1983년 12월 9일 오후 2시부터 거행된 목동 신시가지 개발사업 기공식 사진이다. 염보현 제20대 서울특별시장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기공식을 축하하고 있다.
출처: 서울사진아카이브, 115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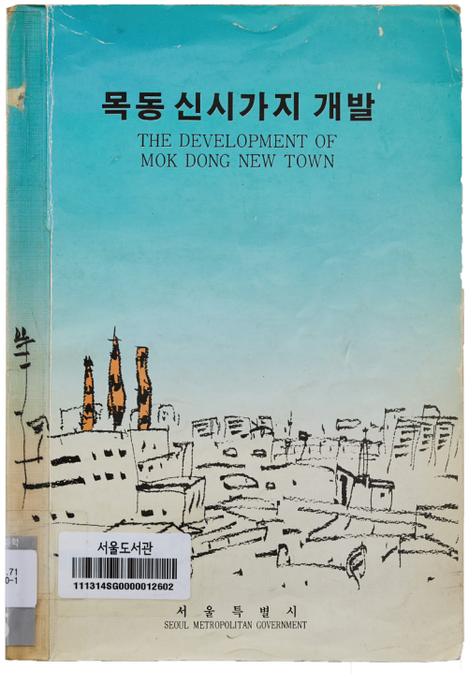
14
염보현 서울시장 목동사업소 시찰 (1985. 5. 3.)
염보현 제20대 서울특별시장이 목동지구개발사업소를 시찰하고 있다. 최초의 공영개발 표방한 목동 신시가지 개발 사업은 당시 서울시의 주요 사업 중 하나였다.
출처: 서울사진아카이브, 124417, 124420

15
김용래 서울시장 목동사업소 시찰 (1988. 3. 8.)
김용래 제21대 서울특별시 시장이 재임 초기 목동지구개발사업소를 시찰하고 있다. 목동지구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있던 시점이다.
출처: 서울사진아카이브, 140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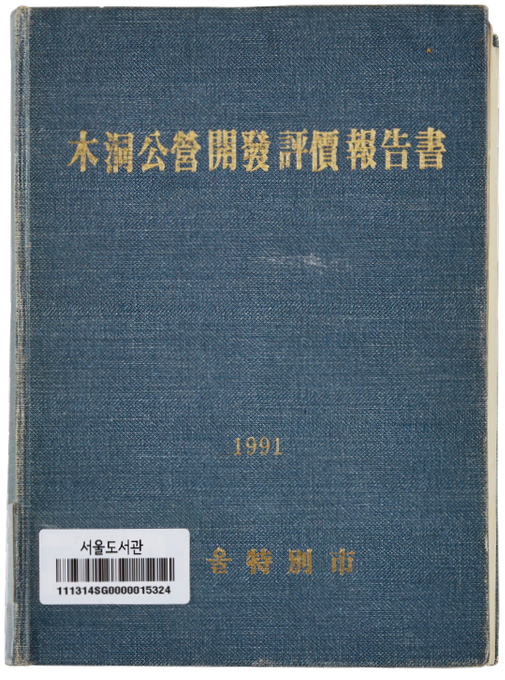
16
〈목동신시가지개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1990, 서울도서관 소장
목동 개발의 전체사업이 아직 완료되기 전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에서 발간한 60쪽자리 간행물이다. 목동신시가지 개발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하고 있다. 한글과 영문을 병기해서 작성한 것이 특징이다.

17
〈목동공영개발평가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1991, 서울도서관 소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에서 편찬한 목동개발의 종합평가보고서이다. 향후 목동 개발과 유사한 사업의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목동지구 공영개발에 따른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 사업시행 과정 및 평가 등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 편찬 용역을 목동 개발 전반에 참여했던 ㈜서울건축콘설탄트가 시행했다.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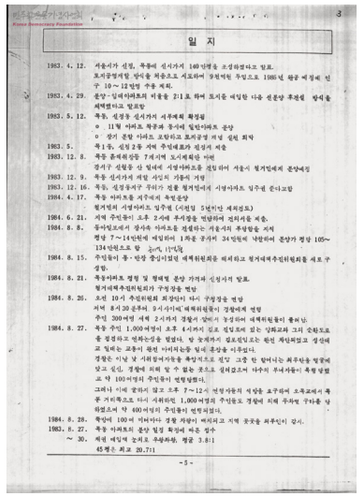


18



18
“강서구청장은 물러가라”는 표지가 붙은 목동 철거촌의 한 대문 (1985. 3. 19.)
“강서구청장은 물러가라, 대책없는 철거를 취소하라”라는 표지가 붙은 목동 철거촌의 한 대문이다. 개발 초기에 다양한 평수의 장기임대 아파트를 건설하여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했던 서울시가 입장을 바꾸면서 기존 목동 지역 주민들의 투쟁이 약 3년 간 지속되었다.
출처: 경향신문

19



일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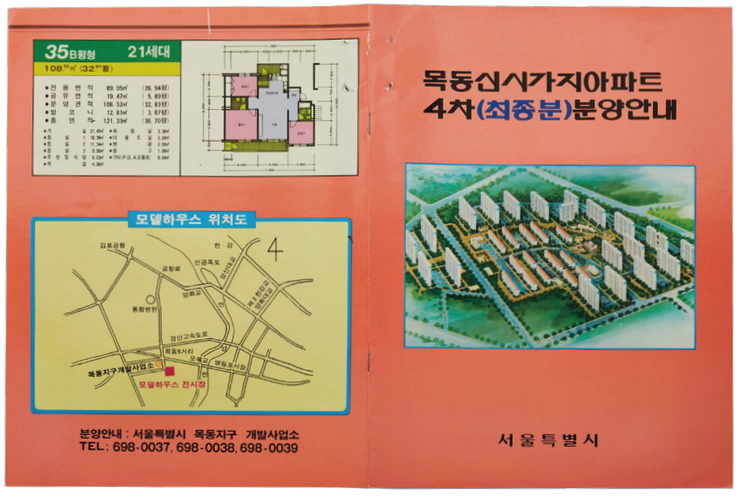
1983. 4. 12. 서울시가 신정, 목동에 신시가지 140만평을 조성하겠다고 발표.
토지공개념법 제정을 적극 촉구하고 서울지역에 3개지역 주택조합 1986년 착공 예정에 반구 10~12만평 주장 제외.
1983. 4. 29. 공장·일반아파트의 비율을 2:1로 하여 도시중 세입자 다송 건물을 주택을 장려할 세제법이라고 발표함
1983. 5. 12. 목동, 신정동 신시가지 시주계획 확정됨
○ 11월 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입주아파트 준공
○ 장기 공영 아파트 조합이고 조합공영 개념 실현 최적
1983. 5. . 목동, 신정 2동 지역 주민대표가 신정지 서울
1983. 12. 8. 목동 올림픽공원 7개지역 도시재개발 지역
장기주 신청동 산 입에서 서명아파트를 건립하여 서울시 철거업체에 준양예정
1983. 12. 9. 목동 신시가지 개발 시민의 거동이 거방
1983. 12. 16. 목동, 신정동지구 주택수 건물 철거업체의 시영아파트 입주권 준다고함
1984. 4. 17. 목동 아파트를 저주택의 목적준양
철거민의 시영아파트 입주권 (이전입 5년이상 세대원도)
1984. 6. 21. 지역 주민들이 조주 2지역 주거정을 반영하여 건의서를 제출.
1984. 8. 8. 철거민조례가 정식과 아파트를 건설하는 기술이의 주택정을 지적
평당 7~14만원에 배입하여 1차로 공가서 34만원씩 나왔는데 공장가 평당 105~134만원으로 알 높여 17만원
1984. 8. 15. 주민들이 동·반장 중심이었던 세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철거대책주민위원회를 새로 구성함.
1984. 8. 21. 목동아파트 철거 및 철대법 준양 가격과 신청서식 발표.
철거대책주민위원회가 구성장을 변경
1984. 8. 26. 3번 19가 주민위원회 회장단이 다시 구성장을 변경
서명 8시30 준주의, 9시부터 대책위원회가 경찰에게 변명
주민 300여명 서명 2시까지 경찰서 앞에서 농성하여 대책위원들이 출퇴는
1984. 8. 27. 목동 주민 1,000여명이 오후 4시까지 갈고 집단으로 없는 입퇴교와 그리 주택으로 을 결정하고 대책신청을 했었다. 한 장에까지 갈고있지으는 확인 계산하였고 경찰에 고 있어도 교통이 확한 아이지는등 일이 혼잡을 이루었다.
경찰은 이날 낮 서대문서에서동을 특별서으로 선정 그중 한 입에서는 최루탄을 발생에 모고 있다. 경찰이 의해 및 수 없는 혼으로 설퍼갔으며 따주의 주세자들이 폭행당했고 약 100여명이 주민들이 연행당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오후 7~12시 연장자들의 지상을 요구하여 오후로에서 폭 주민들으로 이어 시위하면 1,000여명의 주민들도 경찰에 의해 주차장 구타를 당 하였으며 약 400여명이 주민들이 연행되었다.
1984. 8. 28. 확인이 100여 이하이나 경찰 차량이 배치되고 지역 순찰을 최주되어 갔다.
1983. 8. 27. 목동 아파트의 준양 입장 확인에 따른 일수
~ 30. 제일 배입에 있어는 우량하여, 평균 3.8:1
45평은 최고 20.7: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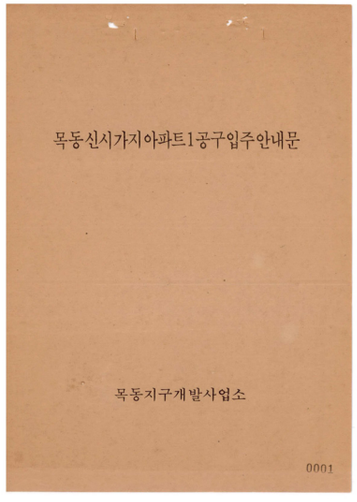
19
목동에서 온 편지(목동 주민 일동 기록일지) (1985. 3.)
목동 주민들의 투쟁을 기록한 29쪽 분량의 자료. 1985년 3월에 작성되었다. 주요 사건들의 일지와 가옥주대책위의 성명서, 세입자 대책위의 성명서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114132

20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국민주택 분양안내〉 (1986)
서울시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분양을 광고하기 위해 만든 다양한 카탈로그이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건설은 전 단지에 총 26,629세대의 주거를 건립하였고, 그 시기는 총 4차로 나누어 건설되었는데, 1차 분양이 진행된 이후 국민주택규모는 213세대가 미달되는 등 초기 분양 성적이 좋지 못했다.

21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공구 입주안내문 (1985. 10. 30.)
1983년 10월 30일에 목동지구개발사업소가 작성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입주 안내문이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공구 입주는 1985년 11월 20일부터 1985년 12월 17일까지 28일간 진행되었다.
출처: 서울특별시(1985)
〈목동신시가지아파트1공구입주안내문〉, 《일반관계공문철》(목동신시가지아파트분양현황)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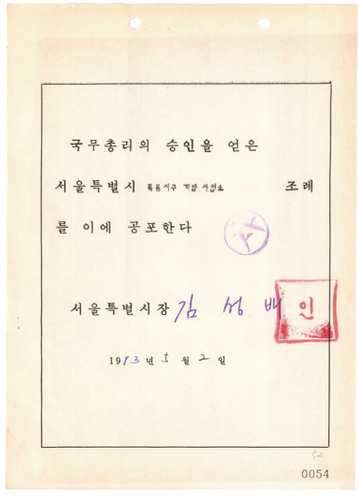
21

22
서울특별시 목동지구 개발사업소 설치조례공포 중 일부
1983년 5월 2일에 서울특별시 목동지구 개발 사업소 설치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1765호)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공포된다는 내용의 문건이다. 목동 지구 개발 계획을 추진한 김성배 제19대 서울특별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으며, 사본이다.

23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설치조례외 20건 공포 중 일부
1989년 11월 3일에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사무분장 규칙 폐지 규칙이 공포된다는 내용의 문건이다. 고건 제22대 서울특별시장 직인이 찍혀 있으며 사본이다. 목동지구개발사업소도 목동 개발 사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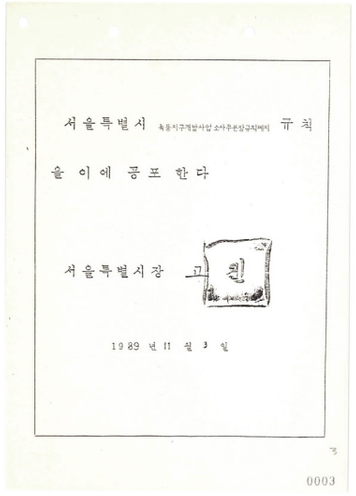
24
〈1988년도 관리 문서 색인 목록표〉, 《보존문서기록대장(건축공사과)》(1988)
목동지구개발사업소 건축공사과의 1988년도 관리 문서 색인 목록표가 정리된 문건이다. 당시 건축공사과 캐비넷 현황과 관리문서 색인목록(문서명, 생산연도, 생산권수, 보존연한 등), 보존문서 기록대장(생산연도, 보존기간, 문서명, 파기 연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생산날짜는 알 수 없다. 이 문건을 통해서 실제로 목동개발사업소에서 어떻게 목록을 작성하고 문서를 관리했는지 참고할 수 있다.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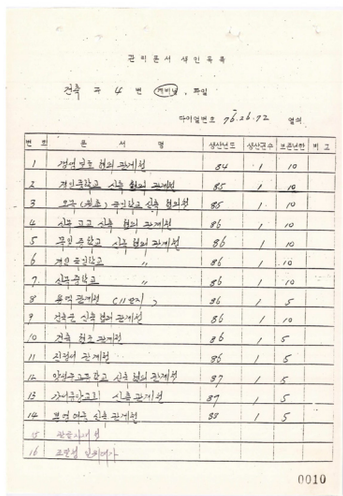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목동지구 개발사업소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김 서 배 인
1983 년 5 월 2 일
0054

23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사무분장규칙폐지 규 칙
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고 건
1989 년 11 월 3 일
0003

24



관리문서 색인목록
건축 국 6 번 캐비넷, 파일
마이크로 78.06.12 열람

번호	문서명	생산년도	생산권수	보존년한	비고
1	경선공동 현황 관계철	84	1	10	
2	경선학교 신축 현황 관계철	85	1	10	
3	목동 (예술) 중학교 신축 현황철	85	1	10	
4	신목 고교 신축 현황 관계철	86	1	10	
5	목일중학교 신축 현황 관계철	86	1	10	
6	계일중학교 〃	86	1	10	
7	신목중학교 〃	86	1	10	
8	목일 관계철 (시방서)	86	1	5	
9	건축주 신축 현황 관계철	86	1	10	
10	건축 현황 관계철	86	1	5	
11	진정서 관계철	86	1	5	
12	양천고교주변 신축 현황 관계철	87	1	5	
13	가내공장지 신축 관계철	87	1	5	
14	철거민촌 신축 관계철	88	1	5	
15	진정서 철				
16	고발철 관계서				

0010



25

25
도장 보관함
목동지구개발사업소 건축공사과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장함이다. 각종 결재도장이 들어 있으며, 2016년 6월 집단에너지사업단 열병합발전소 문서고에서 발견되었다.



출처: 아파트 숲, 류준열 (2016)

연표

2012. 10. 26.	마그네틱 5(김병덕)/둔촌주공/〈TPA(Tree Preservation Area)〉 출간
2013. 5. 19.	마을에 숨어/둔촌주공/페이스북 페이지 〈안녕, 둔촌주공아파트〉 개설
2013. 6. 12.	마을에 숨어/둔촌주공/〈안녕, 둔촌주공아파트 첫 번째 이야기〉 초판 발행
2013. 10. 15.	마을에 숨어/둔촌주공/〈안녕, 둔촌주공아파트 두 번째 이야기〉 초판 발행
2013. 12. 1.	마그네틱 5(김병덕)/둔촌주공/〈둔촌아파트 구술집〉 낱개본 출간
2014. 11. 13.	마그네틱 5(김병덕)/둔촌주공/〈1992 둔촌축제〉 출간
2015. 1. 9.	마을에 숨어/둔촌주공/〈안녕, 둔촌주공아파트 세 번째 이야기〉 출간
2015. 7. 1.	이성민/개포주공/'나무산책', '기억산책' 시작
2016. 3. 30. – 2016. 7. 29.	**과천주공아파트 1단지 이주기간**
2016. 5. 18.	마그네틱 5(김병덕)/고덕주공/〈가구 산〉 출간
2016. 11. 28.	마을에 숨어(류준열)/둔촌주공/〈아파트 숲〉 초판 발행
2016. 11. 30.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野/고덕주공/동화책 〈안녕? 안녕! 안녕...〉 초판 발행
2016. 12. 14.	고덕재건축기록보존회/고덕주공/〈고덕주공, 마지막 시간들〉 초판 발행
2017. 6.	**고덕주공아파트 6단지 이주 시작**
2017. 7. 20.	**둔촌주공아파트 이주 시작**
2017. 7. 21.	마그네틱 5(박린)/고덕주공/〈아파트 고양이〉 출간
2018. 4.	**개포주공아파트 1단지 이주 시작**
2018. 8. 17.	이성민/개포주공/기록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위한 프로덕션 시작

1980년대,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자 정부는 '주택 500만 호 건설'을 공약하는 등 주택 개발과 공급에 직접 나섰다. 이로써 1973년 반포주공아파트를 시작으로 둔촌주공아파트(1980년), 개포주공아파트(1981~83년), 고덕주공아파트(1983~84년)가 지어졌으며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 과천에 과천주공아파트(1981년~84년)가 건설되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낡은 주공아파트들은 이미 재건축되었거나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재건축으로 삶의 터전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삶의 기억만큼은 남기려 한 몇 사람이 있다. 이들은 삶의 추억과 풍경을 간직하고자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를 모아 책을 펴냈다. 이들의 활동은 시민기록이 되었다.

이 전시는 둔촌, 고덕, 개포, 과천주공아파트에서 생겨난 다양한 시민기록을 선보이고, 시민기록이 다른 집단에게 전해지고 전이되는 독특한 움직임을 포착할 것이다. 둔촌주공아파트를 기록하기 시작한 한 사람의 움직임이 다른 사람들, 나아가 다른 재개발 아파트 주민들에게로 번져가 '공동체 아카이브'로 확장되었다. 시민기록의 주체인 '마을에 숨어', '마그네틱(MAGNETIC) 5', '고덕재건축기록보존회',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 '개포동 그곳', '과천주공아파트 101동 102호' 총 6개 팀은 촬영, 조사, 기억 수집, 워크숍, 책 발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터전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충실히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자 했다.

현재 여러 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시민기록은 공공기록이 담아내지 못하는 삶의 이야기들을 '작은 역사'로 남기고 있다. 서울기록원은 서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직하는 소중한 방편이자 자료로서 시민기록을 주목하고 있다.



1



2

1
사진집 〈아파트 숲〉 사진집
류준열, 마을에숨어, 2016
〈아파트숲〉은 류준열 작가가 재건축을
앞둔 둔촌주공아파트의 나무들을
약 2년간(2015-2016년) 기록한
사진집이다. 사진집에는 단지 내에
가득했던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재건축으로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소중한 존재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2
독립출판물 〈안녕, 둔촌주공아파트〉
이인규, 마을에숨어, 2013
〈안녕, 둔촌주공아파트〉는 둔촌주공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인규가 재건축을 앞둔
시점에서 아파트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 방면에서 기록한
결과물이다. 총 4권으로 출판된 비정기
간행물로 1권은 아파트에 대한 소개와
이인규 개인의 이야기, 2권은 주민들의
기고글과 아파트 풍경 사진, 3권은 단지
내 12개의 놀이터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4권은 〈안녕,둔촌X가정방문〉이다.

3
독립출판물 〈안녕 둔촌X가정방문〉
이인규, 마을에숨어, 2016
〈안녕 둔촌X가정방문〉은 사람들의 집을 기록해온
영상 작가 라야와 협업한 작업이다. 각기 다른 기간
거주했던 12가구를 방문해 집의 곳곳을 촬영하고
주민들을 인터뷰해 살아온 이야기를 담았다. 재건축을
앞둔 둔촌주공아파트 공간의 모습과 주민들의 생활사를
기록할 목적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크라우드 펀딩
(Crowd funding) 방식의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
텀블벅을 통해 진행되었다. 같은 내용이 독립영화
〈집의 시간들(A Long Farewell)〉로 제작되어
2018년 가을에 개봉했다.

3





4
〈아파트 경비원〉
마그네틱 5, 2017
둔촌아파트의 경비원들을 만나며 찍은 사진과 짧은 구술이 담긴 책이다.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만, 정작 경비원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들의 손길이 닿는 아파트의 화단, 의류 수거함, 경비원의 눈길이 머무는 아파트 공동현관,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경비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부록에서는 경비원들의 일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리수거 기물들만을 다뤘다.

5
〈둔촌축제〉
마그네틱 5
둔촌아파트에서는 1991년부터 2004년까지 둔촌축제가 열렸었다.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던 축제였기에 1997년 IMF 이후 부터는 축제 운영에 어려움이 왔고, 점점 규모가 축소되더니 결국 2004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축제는 열리지 않았다. '다시둔촌 프로젝트'는 둔촌축제가 다시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기록물 수집 프로젝트다. 그 결과 2014년, 아파트 기록물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인 〈1992 둔촌축제〉를 발간하였다.

4



5





6



7

6
아파트놀이터 기념엽서
마그네틱 5
둔촌주공아파트에는 12개의 놀이터가 있다. 각각의 놀이터는 놀이기구도 조금씩 달랐고 크기나 배치에 따라 그 나름의 고유한 분위기가 있었다. 마그네틱 5는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12개의 놀이터를 사진으로 기록하였고, 이를 아파트 기록물 시리즈 중 하나로 출간하였다.

7
〈수목보존지구〉
마그네틱 5, 2014
〈수목보존지구〉는 둔촌아파트의 나무들을 찍은 사진집이다. 철거대상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은 이송조치의 비용이 보존조치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경우 폐기된다. 〈수목보존지구〉라는 이름은 그린벨트처럼 수목이 보존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을 상상하며 지은 것이다. 담담한 눈길로 폐기될 나무들을 바라보는 사진들은 잃어버리게 될 수목의 슬픔을 담고 있다.

이주가 시작되자 주민들은 떠나가고, 아파트 건물과 소수의 관리인력만 남았다. '마을에숨어' 아카이브 팀 안근철은 2017년 3월부터 시작, 2018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둔촌의 기억을 쫓았다. 2018년 4, 5월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다. 이 활동에는 입주 초창기부터 있었던 원형 물품과 주민들이 특이하게 기억하고 있는 물품 등을 수집하는 작업도 포함되었다.

8



9



10



11



12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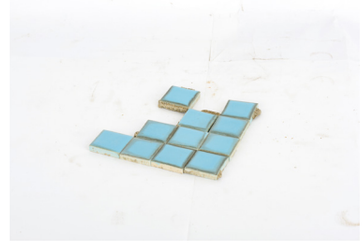
15



16



17



8
우편함
100x62x12(cm), 철제
아파트 동 내에 있는 우편함으로, 전단지를 붙였다가 뗀 흔적 등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다.

9
인터폰 호출기
57x37x27(cm), 플라스틱
경비실에서 사용한 기계식 인터폰 호출기

10
현판
30x150x3(cm), 목재
둔촌주공아파트의 정문에 있었던 현판

11
비상조명등
17x26x20(cm), 유리, 금속
아파트가 정전 되었을 때 자동으로 비상등이 켜진다.

12
층수 표시판
20x20(cm), 플라스틱
각 층 사이 계단실에 있는 표지판

13
바닥 장판
45x45(cm)
1980년대 많이 쓰이던 문양의 바닥장판. 한 주민은 '장판만 보고 있으라'는 부모님의 벌을 기억한다. 그가 기억하는 문양의 특징은 돌모양 중 딱 한 개가 깨진 모양이라고 한다.

14
콘센트 덮개
8x12×3.5(cm), 플라스틱
1980년 준공 당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콘센트 덮개

15
경비원 상황카드
27x9.5x3.5(cm), 종이
경비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관리사무소 공문서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비원들의 생활모습을 유추해볼 수 있다. '지하실서 세면중 입니다', '상가에 물건구매차 갑니다'와 같은 문구가 있다.

16
보도블럭
27x27x6(cm), 콘크리트
주로 휴게 및 운동시설이 위치한 곳의 바닥에만 깔린 보도블럭. 가운데 꽃문양이 새겨져 있다.

17
퍼고라 벽면타일
2.5x2.5(cm), 타일
야외 팔각퍼고라 벽면 전체에 붙어있던 타일. 주민들은 푸른 숲 속에서 햇빛에 비치어 반짝이던 예쁜 에메랄드색을 기억한다.



18



19

18
〈가구산〉
마그네틱 5, 2016
고덕주공아파트 철거 시리즈 중 첫번째 사진집으로, 아파트가 철거되며 이주하는 주민들이 버리고 간 가구들을 찍은 사진집이다. 오래 쓰던 가구들의 낡은 시간들이 쌓여서 이룬 산의 모습들을 담았다. “항상 주차장에 자동차가 가득 차있고, 아파트에 사람이 가득 차있는 광경을 보다가 자동차도 사람도 다 빠지고 가구만 남겨져있는 텅 빈 아파트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위기를 풍겼다.”

19
〈철거대상물건들〉
마그네틱 5, 2017
철거 시리즈의 두번째 책으로, 철거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들을 촬영한 사진집이다. 제목 그대로 자연이 물건처럼 쑥 뽑혀서 없어지는 상황을 사진으로 담았다. 마그네틱 5의 김병덕 작가는 아직 폐기 되지 않은 〈수목보존지구〉의 나무 사진들과는 달리, 폐기가 진행되고 있는 고덕 주공 아파트 나무의 잘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진들로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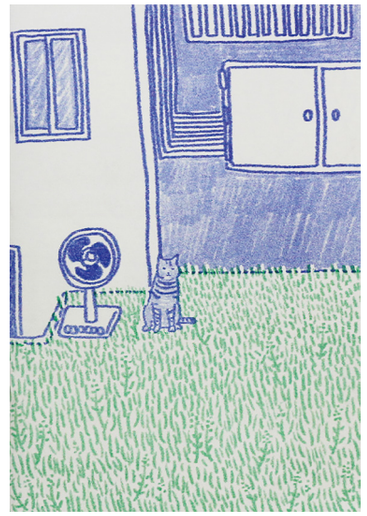
20
〈고덕주공, 마지막 시간들〉
박혜윤 외 3인, 고덕 재건축 기록 보존회, 2016
(박혜윤, 김현희, 윤정수, 민명옥)
‘고덕재건축기록보존회’가 만든 〈고덕주공, 마지막 시간들〉에는 198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고덕주공아파트의 역사가 담겨 있다. 책에는 정든 놀이터와 아파트의 상징 같던 굴뚝, 이웃들의 쉼터였던 정자와 약수터 등 아파트 구석구석을 담은 사진이 있으며, 집주인의 개성이 엿보이는 빈집, 오랜 자연과 함께한 청설모, 새들의 보금자리, 사계절을 담은 풍경까지 고덕주공의 발자취가 그대로 숨쉬고 있다.

21
〈아파트 고양이〉
마그네틱 5, 2017
고덕 주공아파트의 고양이들을 그린 작은 책이다. 마그네틱 5의 박린 작가 특유의 아기자기한 일러스트와 감성적인 구성이 돋보인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들은 철거 과정에서 떠나지 않는다. 주민들은 고양이들을 위해서 공사 슬레이트에 출입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보호소로 데려가기도 했다. 박린 작가는 그 상황들을 관찰하고 차분한 일러스트로 표현했다.

22
〈안녕? 안녕! 안녕...〉
정가람 외 2인, 문화예술공작소 아이야, 2016
(정가람, 조기옥, 김경원)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野’는 2016년 봄부터 가을까지 사람들이 떠난 후 남겨진 물건들을 통해 기억하는 고덕주공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안녕? 안녕! 안녕...〉을 제작하였다. 사람은 살았는데 아무 기록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철거에 대비하여 비어있는 단지들을 기록한 것이다. 극작가인 정가람 씨와 출판, 편집과 사진 찍는 일을 함께 하는 조기옥 작가, 어린이들과 미술작업을 오래 해온 김경원 작가가 공동작업한 작품이다. 그림책을 만든 경험이 없는 세 작가였지만 오래된 동네가 사라지기 전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 모두의 추억으로 선물하자는 마음을 모으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작업을 시작하였다.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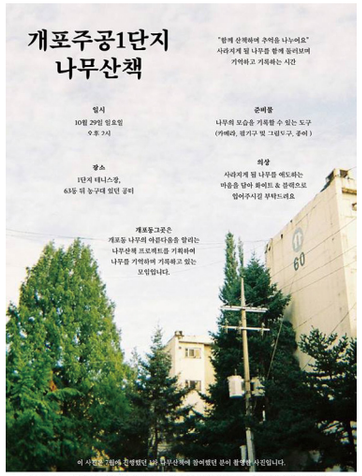
21



22



23



24

23
개포동 나무산책
‘나무산책’은 개포주공아파트를 기록하는 이성민 작가가 2017년 7월경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로, 2018년 9월 30일 마지막 나무산책까지 총 10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나무산책’에서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개포주공아파트의 나무와 여러 기억들을 기록하고,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준비된 일회용 카메라로 사진을 담는다.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나무원정대’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그림이나 글, 또는 나무의 잔해들을 붙여서 어디에 살았던 나무인지를 기록하고, 나무의 이름을 지어주는 ‘나무 이름 캠페인’도 ‘나무산책’ 활동에 포함되어 있다.

24
개포동 나무산책 포스터
'나무산책' 포스터 중 하나이다. 온라인으로 홍보하던 이전 방식과 달리, 오프라인에서 전단지 형식으로 부착한 첫 홍보지이다. 온라인으로 소식을 접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아파트 각 입구에 150부를 부착하였다. 포스터에 활용된 사진은 1차 나무산책에 참여한 사람이 찍은 것이다. 포스터 속에는 일시, 장소, 준비물, 의상 그리고 목적이 적혀있다.





25
개포동 기억산책
‘기억산책’은 개포주공아파트 주민들의 기억이 담긴 장소에서 이성민 작가가 직접 사진을 찍어주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기존에는 ‘사진촬영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활동이 ‘기억산책’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2017년 7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7회 정도 진행되었으며, 가족이나 친구 혹은 개인 등 신청한 단위로 작가와 직접 대면하는 만남이 이루어진다. ‘기억산책’ 프로젝트는 추억의 장소들이 사라지기 전 사람들을 다시 불러 기억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다.

기록의 발원發源

경북 청도군
범곡리 134-18,
서울특별시 문서보존소

연표

1968.	국무총리지시 제2호에 의해 청도군청 옆 서고 개관
1994.	청도문서고 신축
2012. 4.	박원순 시장, 청도문서고 방문
2018.	서울기록원으로 이관을 위한 사전 협의 및 현장 실사
2019. 5.	서울기록원 개원
2019. 6.	청도문서고 소장 보존 기간 30년 이상 기록 이관 시작(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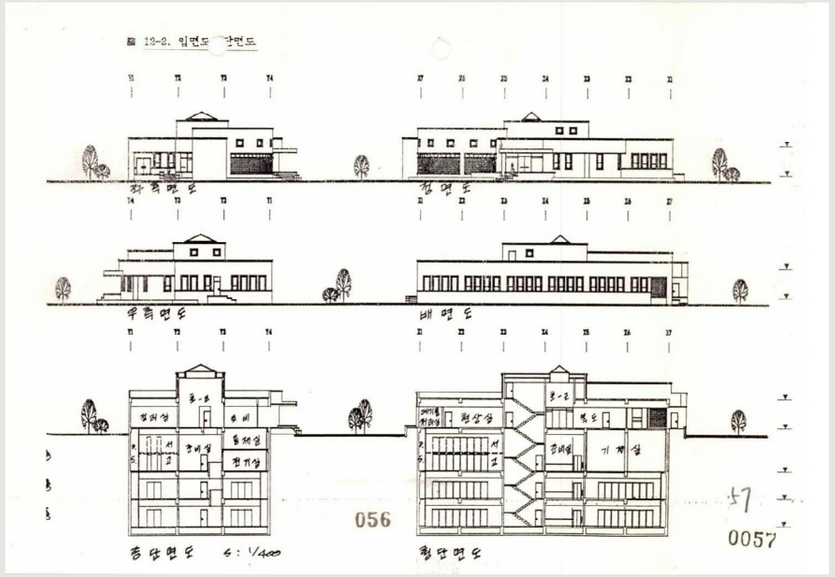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서울의 기록들이 보존되고 있었다. '청도문서고'다. 1968년, 북한 특수요원들이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김신조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시는 이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 중요한 역사적 자료를 분산 보존하여 국가 재난사태에 대비하고자 문서고를 마련했다. 접근이 쉽지 않은 산악지역인 경북 청도군에 다름 아닌 서울시 문서보존소 청도문서고가 설치된 이유다.

청도문서고는 지하철 1호선 평면도부터 도로, 상하수도, 각종 공공건축물의 설계도, 지적도, 인감대장에 이르기까지 서울이라는 도시의 설계도라고 할 만한 기록물을 보존해왔다. 그 양은 방대해서 청도문서고의 기록들을 촬영한 마이크로필름 8,000개를 꺼내 한 줄로 이으면 서울에서 시작해 청도에 닿을 정도이다.

시정 중요 기록을 보존해온 청도문서고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제 역할과 기능을 다했다. 서울기록원의 정식 개관·운영과 함께 청도의 기록은 2019년에 전부 서울로 옮기게 된다. 본 전시는 청도문서고의 반세기를 기록하고, 그 발원지인 청도문서고의 어제를 돌아보고자 한다.



출처: 서울시 종합문서고 착공, 48쪽, 1993.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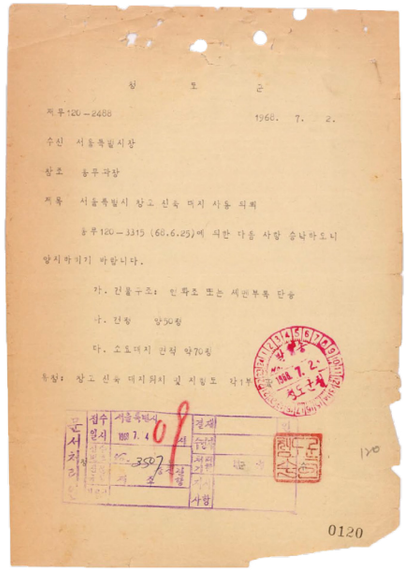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종합문서고 착공, 57쪽, 1993. 12. 31.

1
서울특별시 창고 신축
대지 사용 의뢰 문서
청도군에서 서울특별시로 보낸
문서로 청도문서고 신축을 위해 토지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생산부서는 서울특별시 행정국
민원과이고, 기록물철의 제목은
〈청도문서고 신축〉이다.

2
서울특별시 창고 신축 대지 사용 의뢰의
첨부문서
경북 청도군청 옆 부지로 청도문서고
신축을 위해 조사한 곳이다.

3
청도문서고 건축 설계 도면
서울특별시는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134-18에 청도문서고를 건립했다.
1968년 3월 국무총리지시 제2호(보존문서정리작업계획)에 따라 건립을 시작했다.
같은 해 9월에 청도군청 부지 330㎡를 무상임차하여 166㎡의 건물을 신축했다.
현재의 문서고는 1994년 신축한 건물이다. 서울특별시는 전쟁, 대형사고 등 각종
재난이나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장기 보존이 필요한 중요문서의 안전한
분산 보존을 위해 원격지 서고를 운영한다라고 건립/운영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기록은 1991년에 만들어진 청도문서고 건축 도면이다.
출처: 일진종합건축사사무소 (199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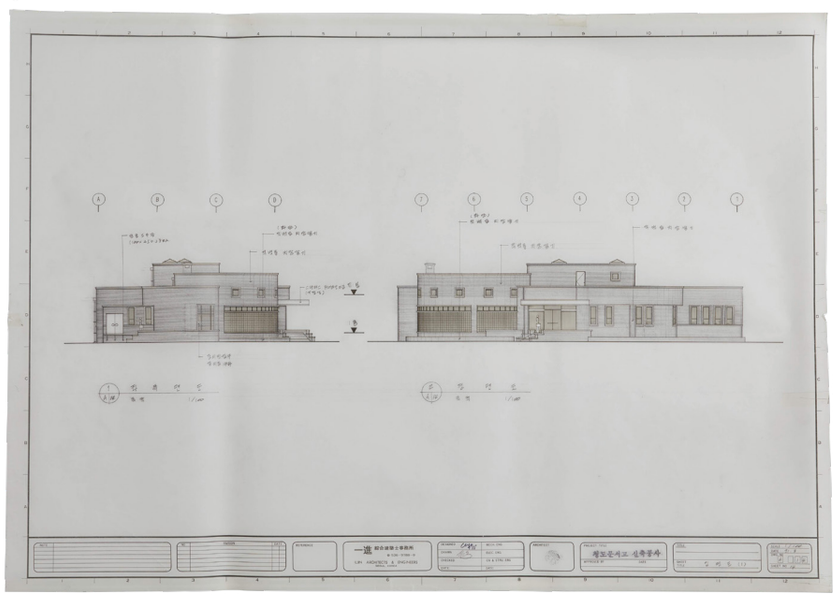
1



2



3





4



5



6

4
마이크로필름 복제기
77x53.3x58.6(cm)
25년 된 마이크로필름 복제기이다.
릴을 장착해서 필름의 사본을 제작하는
기계이다. 지금은 고장 났고 워낙 오래된
모델이라 수리도 할 수 없다.

5
청도문서고에서 사용하던 책상
121.5x76x74.5(cm)
청도문서고의 직원들이 사용하던
책상이다. 구입한지 30년이 넘어 너무
낡아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6
마이크로필름 스캐너
108x89.6x169(cm)
마이크로필름을 스캔하는 기계이다.
서울시의 많은 토지대장을 이 기계로
스캔했고,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하고
있다. 현재는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다.

기록의 발굴發掘　　일본군‘위안부’기록

특별전시
기간 | 2019. 4. 1. ~ 2019. 9. 30.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가 발표되었다. 양국은 이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공표했다. 이로 인해 당시 ‘위안부’ 관련 기록을 발굴 중이던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연구팀은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어 연구의 진행이 어려워졌다. 손을 내민 것은 서울시였다. 2016년부터 3년 간, 연구팀은 서울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1991년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의 증언 이후,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지난 30여 년 간 그다지 축적되지 못한 것이 실정이었다. 또한 여러 연구자가 저마다 수집하고 발표한 자료들을 통합해 파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일본군‘위안부’ 자료를 모으고 선별해 2018년에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일본군‘위안부’ 자료집이다.

한편 연구팀은 미국 국립문서기록청(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등지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중요 자료를 발굴해냈다. 이 자료들은 좀처럼 검색되지 않아 그간 연구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던 것이었다. 본 전시는 찾아내기 어려웠지만 역사적으로 가치가 큰 ‘위안부’ 자료에 다가가는 과정을 소개한다.

더불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 소장하고 있는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및 ‘정신대 문제’에 관한 기록을 소개한다. 기증자는 국제법학자 조시현과 해당 법정에서 검사로 활동했던 박원순이다. 이 자료들은 당시 법정의 준비, 추진, 경과의 전후맥락을 밝히는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아카이브(genderarchive.or.kr)를 구축하고 꾸준히 기록을 수집하여 정리, 보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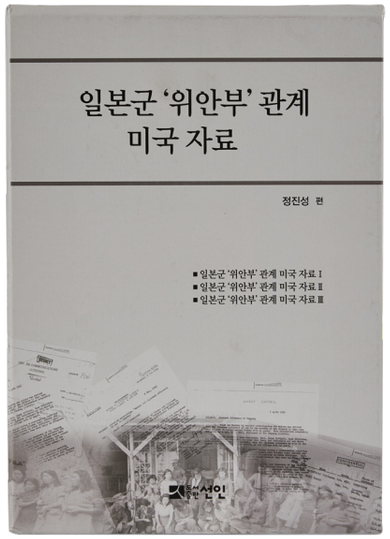
연표

1941.	**하복향 할머니, 필리핀 마닐라에 끌려감**
1945. 9. 14.	**하복향 할머니, 필리핀 루손 섬에서 미군에 의해 발견**
1945. 10. 3.	**하복향 할머니, 루손 포로수용소에 수용**
1945. 10. 12.	**하복향 할머니, ‘J.N.E 60호’에 승선, 일본으로 출발**
2001. 2. 1.	**하복향 할머니, 고혜정 한국정신대연구소 소장을 만나 ‘위안부’ 피해 사실을 밝힘**
2001. 2. 10.	**하복향 할머니, 피해 사실을 밝힌지 열흘만에 사망**
2014. 9.	서울대학교 인권센터팀,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팀 조직(연구책임자 정진성 교수)
2015. 1.	정진성 연구팀, NARA 1차 자료 조사 시행
2015. 12. 28.	한일간 외교장관 합의 타결
2016. 3.	서울시,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지원계획 공고 게시
2016. 3.	서울시,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운영계획 발표
2016. 5.	서울시, 2016년도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사업비 교부
2016. 7.	정진성 연구팀, NARA 2차 자료 조사 시행
2016. 12. 29.	문서·사진·증언으로 보는 ‘위안부’ 사례집 발간
2017. 6.	정진성 연구팀, NARA 3차 자료 조사 시행
2017. 7. 5.	서울시 기자회견실에서 발굴한 일본군‘위안부’ 영상 발표
2017. 7.	정진성 연구팀, NARA 4차 자료 조사 시행
2017. 7. 2.	정진성 연구팀, 세계 최초로 조선인 ‘위안부’를 피사체로 담은 영상 발굴 기자설명회
2017. 12. 11.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하복향 할머니의 포로 카드를 발표
2018. 2. 27.	일본군‘위안부’ 자료의 현재와 미래 국제 컨퍼런스 개최, 일본군‘위안부’ 학살 영상 공개
2018. 4. 24.	서울시, 2018년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기록물 관리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출처 | 국회기록보존소, 김정환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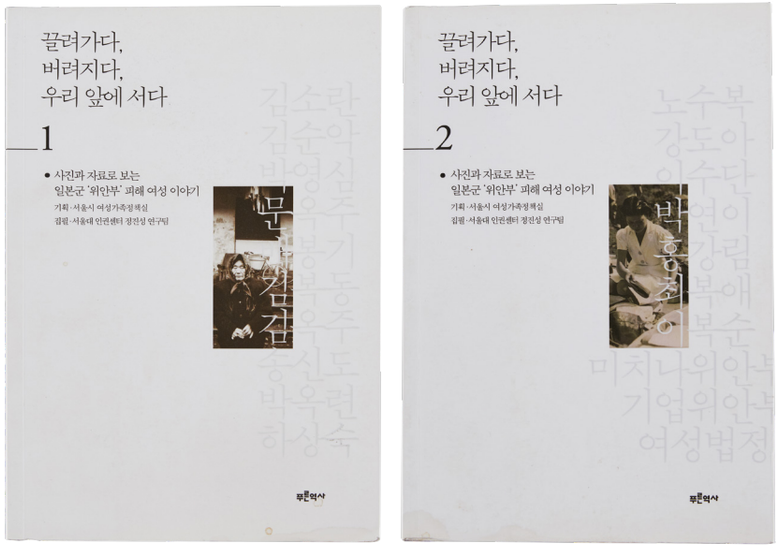
1



2



3



1
〈일본군'위안부' 관계 미국 자료〉
정진성, 선인, 2018
서울대 인권센터팀이 펴낸 일본군'위안부' 자료집이다. 원문, 해제, 해설이 실려있다. 국내에서 발간된 첫 번째 일본군'위안부' 자료집이다.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문서와 사진, 증언으로 보는 일본군'위안부' 이야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서울대학교 인권센터 [편], 2016
서울특별시와 서울대 인권센터팀이 공동으로 발간한 비매품 책자로, 2016 발행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언과 사료를 교차하여 서술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연구팀, 푸른역사, 2018
2016년에 발간된 책을 기초로,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과 사료를 교차하여 서술한 서적이다. 2018년 발행되었고, 총 2권으로 구성되었다. 20건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례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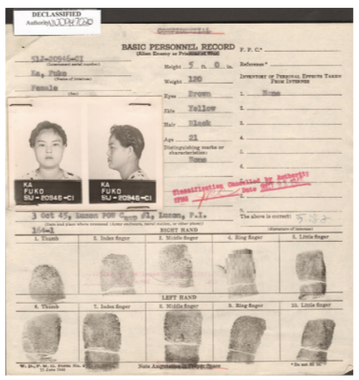
4

4
중국 윈낭성 쑹산(松山)의 조선인 '위안부' 4
111-SC-247386 / CBI-44-60157 (1944. 9. 8.)
1944년 9월 8일 쑹산지역에서 포로로 붙잡힌 10명의 조선인 '위안부'들을 연합군이 심문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다. 육군 164통신사진중대 소속 조지 코쿠렉이 촬영했고, 1946년 7월 15일 공개되었다. 쑹산에서 포로로 잡힌 여성들은 간단한 심문을 거쳐 쿤밍(昆明) 포로수용소에 약 7개월간 수용되었다가, 연합군에 의해 다른 조선인들과 함께 충칭(重慶)을 거쳐 조선으로 귀환했다.
출처: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archives.seou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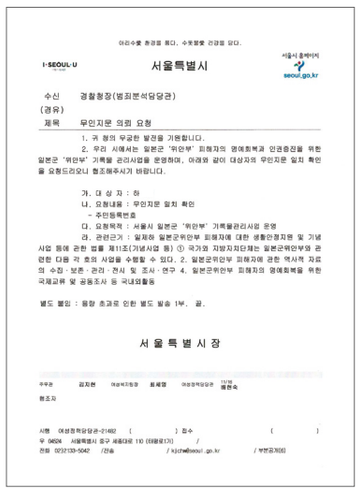
5
하복향 할머니 포로심문카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팀 발굴,
1941년 필리핀 마닐라에 끌려가 1945년 미군에 의해 구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하복향 할머니의 포로 심문 카드이다. 이름, 포로 번호, 키, 몸무게, 피부 색, 머리 색, 눈 색, 직업, 주소지, 지문 등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자필 서명을 하도록 했다. 1945년 10월 3일 작성되었다.
출처: NARA RG 389-En A1 466 F-Box 149-'Ka'

6
하복향 할머니 지문감식 확인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경찰청이 주고받은 공문이다. 포로 카드의 인물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하복향 할머니로 공식 확정할 수 있었던 지문감식 확인서이다. 지문감식 결과 하복향 할머니는 공식적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5



6





행정 821-0024

서울기록원 개관기념전 기억의 힘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보존서비스과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일 2019. 2.

archives.seoul.go.kr

제작부서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2길 7
전화 02-350-5600

편집 및 디자인 슬로워크

인쇄 예인미술

ⓒ 2019. 서울기록원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ISBN 979-11-6161-566-0 03350

표지 모조 220g, 내지 모조 120g, 182*257mm(B5), 32pgs, 양면 4도, 중철제본

ISBN 979-11-6161-566-0 03350